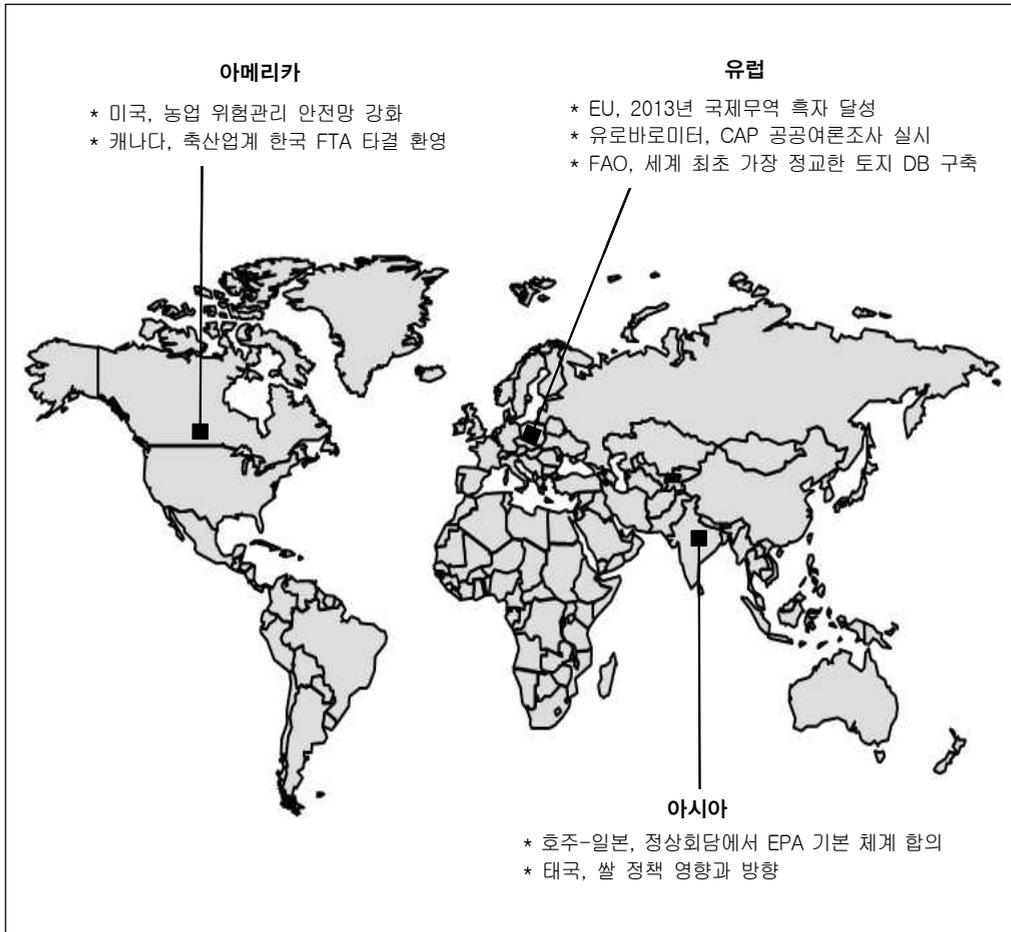


#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EU, 2013년 국제무역 흑자 달성
2. 유로바로미터, CAP 공공여론조사 실시
3. 캐나다, 축산업계 한국 FTA 타결 환영
4. 미국, 농업 위험관리 안전망 강화
5. 호주-일본, 정상회담에서 EPA 기본 체계 합의
6. 태국, 쌀 정책 영향과 방향
7. FAO, 세계 최초 가장 정교한 토지 DB 구축

##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4. 4)





## EU, 2013년 국제무역 흑자 달성

※ EU 통계청(eurostat)은 2014년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월 EU의 대외 무역 통계 및 2013년 상세 교역 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2013년 교역 실적

- 2013년 EU 28개 회원국 수출액은 17,329억 유로로 2012년 16,831억 유로에 비해 약 3% 증가했음. 수입액은 16,834억 유로로 2012년 17,893억 유로보다는 약 3% 감소하여 49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함<표 1 참조>.
  - 에너지 분야 적자는 2013년 -3,816억 유로로 전년 동기 -4,227억 유로 대비 감소했음. 반면 공산품 분야 흑자는 2013년 3,905억 유로로 전년 동기 3,565억 유로 대비 증가했음.
- 2013년, EU 28개 회원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터키(4%)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표 2 참조>.
  - 일본(-13%), 브라질(-12%), 스위스(-11%), 노르웨이(-11%), 한국(-6%), 미국(-5%), 중국(-4%), 러시아(-4%), 인도(-2%) 등 모두 수입이 감소했음.
- 2013년 EU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은 일정 패턴 없이 증가 또는 감소했음.
  - 스위스(27%), 한국(6%), 터키(3%), 중국(3%), 브라질(1%), 노르웨이(1%) 대상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인도(-7%), 일본(-3%), 러시아(-3%), 미국(-2%) 대상 수출은 감소함.
- 2013년,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수지는 대부분 개선되었음.
  - 스위스(2013년: +753억 유로, 2012년: +276억 유로), 미국(2013년: +920억 유로, 2012년: +863억 유로), 터키(2013년: +275억 유로, 2012년: +271억 유로), 브라질(2013년: +71억 유로, 2012년: +22억 유로) 등과의 교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했음.
  - 한국(2013년 +41억 유로, 2012년 -2억 유로)과의 교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중국(2013년: -1,318억 유로, 2012년: -1,476억 유로), 러시아(2013년: -868억 유로,

2012년: -917억 유로, 노르웨이(2013년: -398억 유로, 2012년: -511억 유로), 일본 (2013년: -24억 유로, 2012년: -92억 유로) 등의 교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했음.  
 - 인도(2013년 -9억 유로, 2012년 +10억 유로)와의 교역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표 1 EU28개국 주요 품목 교역 실적

단위: 10억 유로, %

	EU28 수출			EU28 수입			무역 수지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주요 품목	272.1	266.9	-2	722.0	668.4	-7	-449.9	-401.5
식료품 & 음료	99.0	104.3	5	93.1	93.4	0	5.9	10.9
원료	47.6	45.3	-5	80.7	76.0	-6	-33.2	-30.7
에너지	125.6	117.3	-7	548.2	499.0	-9	-422.7	-381.6
제조품	1,360.0	1,364.8	0	1,003.4	974.3	-3	365.5	390.5
화학제품	275.4	273.1	-1	163.3	157.5	-4	112.1	115.6
기계 및 운송수단(차량)	705.2	708.7	0	452.3	436.0	-4	253.0	272.7
기타 제조품	379.3	383.0	1	387.9	380.8	-2	-8.5	2.2
기타	51.0	101.2	98	72.8	40.8	-44	-21.8	60.5
합계	1,683.1	1,732.9	3	1,798.3	1,683.4	-6	-115.2	49.5

자료: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collections/news\\_releases](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collections/news_releases)).

표 2 EU28개국 주요국 대상 교역 실적

단위: 10억 유로, %

	EU28 수출			EU28 수입			무역 수지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미국	292.8	288.0	-2	206.5	196.0	-5	86.3	92.0
중국	144.0	148.1	3	291.6	279.9	-4	-147.6	-131.8
러시아	123.4	119.8	-3	215.1	206.6	-4	-91.7	-86.8
스위스	133.5	169.5	27	105.9	94.3	-11	27.6	75.3
노르웨이	49.9	50.2	1	101.0	90.0	-11	-51.1	-39.8
터키	75.4	77.7	3	48.3	50.2	4	27.1	27.5
일본	55.6	54.0	-3	64.7	56.4	-13	-9.2	-2.4
대한민국	37.8	40.0	6	38.0	35.8	-6	-0.2	4.1
브라질	39.7	40.1	1	37.4	33.0	-12	2.2	7.1
인도	38.5	35.9	-7	37.5	36.8	-2	1.0	-0.9

자료: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collections/news\\_releases](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collections/news_releases)).

- 2013년 EU 회원국의 교역 수지는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기록함.
  - 독일(+1,996억 유로), 네덜란드(+552억 유로), 아일랜드(+368억 유로), 이탈리아(+304억 유로), 벨기에(+141억 유로) 및 체코(+136억 유로), 덴마크(103억 유로) 등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
  - 영국(-847억 유로), 프랑스(-760억 유로), 그리스(-193억 유로) 및 스페인(-169억 유로) 등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

표 3 EU 회원국의 주요 교역수지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총수출			총수입			무역 수지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증가율	2012	2013
독일	1,093.6	1,093.8	0.0	905.4	894.3	-1.0	188.3	199.6
네덜란드	508.9	500.0	-2.0	459.5	444.8	-3.0	49.5	55.2
프랑스	442.6	436.5	-1.0	524.9	512.5	-2.0	-82.3	-76.0
영국	368.0	407.9	11.0	537.5	492.6	-8.0	-169.5	-84.7
이탈리아	390.2	398.8	0.0	380.3	359.5	-5.0	9.9	30.4
벨기에	347.1	353.5	2.0	341.8	339.4	-1.0	5.3	14.1
스페인	229.8	238.3	4.0	262.6	255.2	-3.0	-32.8	-16.9
체코	122.2	121.6	-1.0	110.1	108.0	-2.0	12.2	13.6
아일랜드	90.9	86.0	-5.0	48.9	49.2	1.0	42.0	36.8
덴마크	82.1	83.6	2.0	71.5	73.3	2.0	10.5	10.3
그리스	27.6	27.5	0.0	49.2	46.9	-5.0	-21.6	-19.3

자료: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collections/news\\_releases](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collections/news_releases)).

## □ 2014년 1월 EU 대외무역 통계

- 유로 지역(euro area) 18개국<sup>1)</sup>의 대외 교역수지는 2014년 1월 한 달간 9억 유로 흑자였으나, 전년 동기에는 54억 유로 적자였음. 한편 2013년 1~12월 기준으로 2013년 대외 교역수지는 138억 유로 흑자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40억 유로 증가했음.
- EU 28개 회원국 전체의 2014년 1월 대외 교역수지는 130억 유로 적자로, 전년 동기 177억 유로 적자보다는 감소했음. 그에 반해 2013년 12월 기준, 2013년 대외 교역수지는 81억 유로 흑자로, 전년 동기 24억 유로 적자와는 상반됨.

※ 자료: Eurostat(2014.03.18)

1)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라트비아(2014년 1월 1일부로 유로존 국가 통계에 편입).

## 유로바로미터, CAP 공공여론조사 실시

### □ 유로바로미터, 2014-2020 CAP 개혁 관련 국민인식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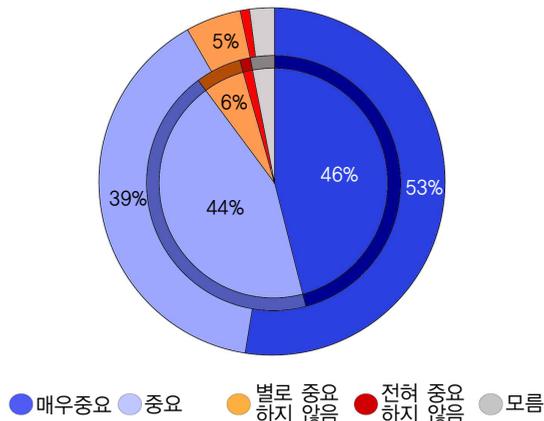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62년에 도입되어 농업과 사회, 유럽과 농업인들 간에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옴. 본 정책은 EU의 연간 예산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수준에서 관리하고 재정 지원하는, EU내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임.
  - CAP의 주요 목표는 시간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대의 농산품을 지속적인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고, EU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임.
  - 2013년 11월 EU는 2014~2020년 CAP 개혁안을 타결함. 새로운 CAP은 농업의 녹색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EU회원국 간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 금번 특별 유로바로미터 410(Special Eurobarometer 410) 조사에서는 다음과 내용을 다룸.
  - EU국민과 농업 간의 관계: 유럽인들은 농업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다양성과 농촌개발인가? 그들의 농업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무엇인가?
  - EU국민과 CAP 간 관계: 국민들이 CAP에 대해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는가? CAP의 주요 특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 농업인 재정지원과 전체 CAP예산에서 본예산의 비중에 관한 유럽 공공여론
  - 사회에서 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럽 공공여론
  - 특정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EU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의 정도
  - EU소비자 품질보장 로고와 라벨에 대한 인식
- 금번 조사는 2013년 11월 23일~12월 2일 동안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TNS Opinion & Social network가 수행함. 상이한 사회적·인구학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27,919명의 EU시민을 직접 만나 모국어로 인터뷰하여 이루어짐.

- 조사 결과 77% 이상의 응답자가 CAP 시행으로 모든 EU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90% 이상이 새로운 CAP의 개혁 방향, 즉 보다 공정한 재정 지원과 집중 지원 방향에 대한 지지를 표함. 또한 친환경 농업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찬성함(그리닝조치, 91%).

## 설문 주요 결과

- 유럽인들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증가하고 있음. 그들은 농촌개발과 더불어 농업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53%, 2009년 대비 7%p 증가). 과반수가 EU내 농업과 농산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함.

그림 1 EU에서 농업과 농촌지역이 우리 미래에서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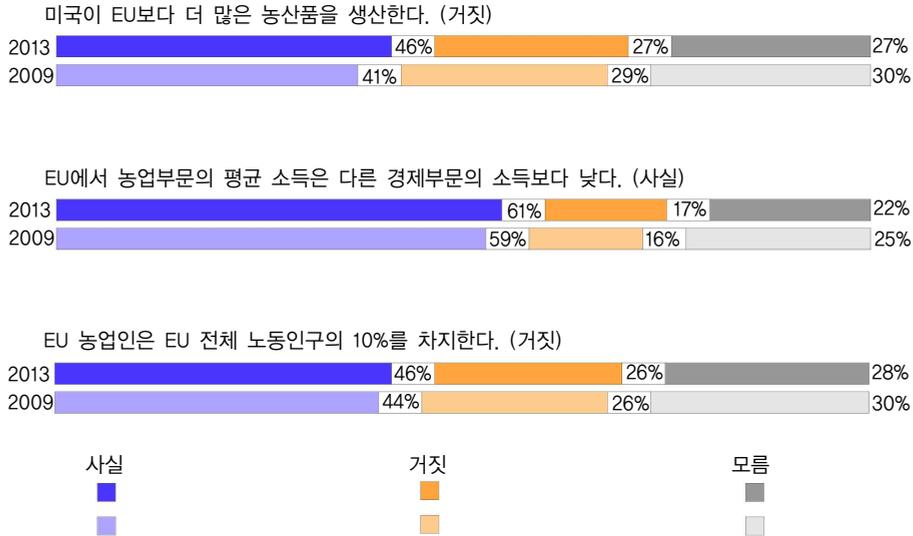
주: 내부 원(2009년 11월 조사), 외부 원(2013년 12월 조사).  
 자료: Special Eurobarometer 410, European Commission.

- 유럽인들 대부분이 유럽농업의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는 수준이지만 다수가 (61%) 농업부문 평균 소득이 여전히 여타 부문의 평균소득에 비해 낮음을 인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또한 유럽인들 다수가(46%, 5%p 증가) 미국이 EU보다 농산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정보부족과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설문응답자의 약 2/3가 CAP하에서 EU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함. 2009년의 경우 유럽인의

41%만이 CAP에 대해 들어본 바 있다고 응답함.

- EU시민의 상당수가 식량공급 보장, 균형적인 농촌개발, 젊은 농업인 지원 등과 같은 CAP의 핵심 요소에 지지를 포함(80% 이상 지지).

그림 2 아래와 같은 농업 관련 질문들이 옳은지, 그른지 답하십시오.



자료: Special Eurobarometer 410, European Commission.

- 유럽인의 92%(2009년 대비 4%p 증가)가 회원국 간 보다 공정하고 집중적인 방법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유럽인의 91%(2009년 대비 4%p 증가)가 친환경적인 농업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농업인 지원금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농업인 지원은 농업의 식량공급 보장 및 환경보호 기능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3/4 이상의 응답자가 CAP이 모든 EU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함. 이는 그들이 농업인에게 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함.
  - 유럽시민들은 농업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 시민들은 좋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농촌지역에서 고용과 경제활동을 창출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감으로 생각함<그림 3 참조>.

○ 두 가지 식품(우유 및 일부 육류)의 생산이력제, 즉 원산국에 대한 것이 소비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로 나타남. 53%의 응답자가 원산 표시라벨에 나타나는 원산 정보를 알기 위해 1~2% 더 지출할 수 있다고 응답함. 농산품 구매에 있어 EU 소비자는 품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

그림 3 CAP 시행으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유럽시민들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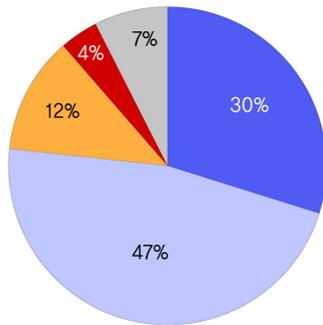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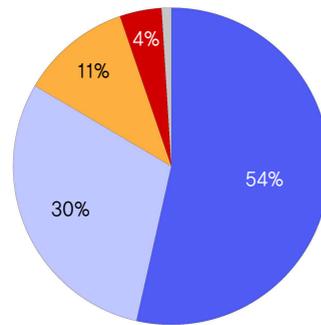


그림 4 우유가 낙농제품의 원료, 또는 원유로 판매될 때 원산지정보가 필요한가?



● 매우동의 ● 동의 ● 반대 ● 매우반대 ● 모름 ● 매우필요 ● 다소필요 ● 불필요 ● 전혀 불필요 ● 모름

자료: Special Eurobarometer 410, European Commission.

※ 자료: Eurobarometer(2014.03)

## 캐나다, 축산업계 한국 FTA 타결 환영

### □ 캐나다 축산업계, 한국과의 FTA 타결 환영

- 지난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연기되어온 자유무역협상(FTA)을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4월 8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서명함. 캐나다 수출업계는 본 FTA 시행으로 인해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본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빠르면 2015년 발효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는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 협상이 한국시장에서 미국 및 EU와 경쟁하는 캐나다업계에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캐나다의 대(對)한국 농업수출은 2012년 평균 52.7%의 높은 관세율에 직면해 있음. 타결된 한-캐나다 FTA는 농업관세선의 86.8%에 달하는 관세를 폐지할 예정임.
  - 관세율이 최대 25%에 달하는 신선냉장,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는 5년~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신선냉장, 냉동 쇠고기와 일부 가공쇠고기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됨.
  - 소와 돼지 내장의 현재 관세율은 18%로 이는 11년에 걸쳐 연간 균등한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될 것임. 소와 돼지 지방과 같은 기타상품은 즉각적인 무관세를 적용받음.
  - 본 FTA협정으로 인해 캐나다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곡물, 유지종자, 두류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협상 조건 하에서 캐나다산 카놀라(평지씨)와 밀은 FTA 발효와 함께 동시에 무관세가 적용됨. 한편 카놀라유의 관세는 7년에 걸쳐 폐지될 예정임.
- 2010~2012년 사이 캐나다의 대한국 연간 농업수출액은 70,800만 달러<sup>2)</sup>이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밀, 돼지고기 및 내장, 가축, 모피, 카놀라유, 맥아, 가공식품 등이었음.

2) 캐나다 달러(CAD), 1 캐나다달러 = 964.76 (2014년 3,26일 기준).

---

○ 한국과 캐나다 양자간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반복적인 연기에 직면해왔음. 한국은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2012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바 있음. 그동안 캐나다 수출업체는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EU, 칠레에 밀려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아짐.

- 자유무역협정 없이 캐나다의 대한국 돼지고기 수출액은 2011년, 2012년 각각 22,300만 달러(이하 CAD 동일), 12,900만 달러였음. 한편 2013년 돼지고기 수출액은 7,600만 달러로 감소추세임. 캐나다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FTA가 완전히 이행될 시 한국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려함.
- 한국은 목살, 삼겹살 등 돼지고기 고가시장으로 미국은 한국간의 FTA에서 돼지 한 마리당 약 1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캐나다 또한 유사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쇠고기 업계 또한 본 협정이 향후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함. 2002년 캐나다는 한국에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쇠고기를 수출하여 상위 4위 수출국이었으나, 2013년 미국 쇠고기에 비해 증가하는 관세 불이익으로 780만 달러 수출에 그침.

※ 자료: Agra Europe(2014.3.18)

## 미국, 농업 위험관리 안전망 강화

※ 미국에서 사회복지 부문 투자를 강화하는 분위기 가운데 새로 승인된 미국 농업법은 농업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식품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 새로운 정책의 의의

- 새로운 정책의 본질은 각 주요 품목에 대한 보조금(농업인 수취 가격과 공식 목표 가격(target price)<sup>3)</sup> 차액을 충당하는)을 제공하는 것임.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1947년과 1973년 사이 영국 정부에 의해 시행된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sup>4)</sup>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정책은 명백히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있으며, 생산을 증가(production-positive)시킬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관찰자(objective observers) 입장에서는 새 정책을 WTO의 농업부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1994)에 관한 감축대상 보조금(Amber Box)<sup>5)</sup> 조치로 분류 가능함.

### □ 정책 개편

- 급변하는 이전의 품목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mes)에 더하여, 새 법률은 정부 지원을 받는 다양한 작물보험 항목(option)을 추가함.
  - 새 법률은 보존 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을 간소화하고,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의 운영상 규정을 변경함.
  - 새 법률은 또한 특수작물(speciality crops), 유기농 재배 농업인, 생물에너지, 농촌개발, 신규농업인 양성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음.

3) 농가에 대해 정부가 결손보상을 결정하는 지지가격수준을 말함.

4) EU의 CAP와 미국의 농업정책 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농가수취가격과 실제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세수를 통한 공공재정 또는 소비자의 높은 가격부담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임.

5)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 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임(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

- 법률에 따른 지출액의 80%는 영양프로그램, 8%는 작물보험 프로그램, 그리고 6%는 보존 프로그램에 지원될 것임. 지출액의 5%는 시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나머지 1%는 그 밖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표 1 참조>.
  - 2014~2018년 법률 시행 기간에 농업 지원 및 기타 농업 정책 조치 비용은 6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총 비용인 4,890억 달러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1 법률에 따른 항목별 지출액 지원 비율

지원 항목	지원 비율(%)
영양프로그램	80
보험프로그램	8
보존프로그램	6
시장 지원	5
기타 프로그램	1
합계	100

자료: Agra-Europe(<https://www.agra-net.net/agra/agra-europe/>).

- 보조금은 이른바 당해품목(covered commodities)<sup>6)</sup> 생산자를 위한 품목 가격 또는 수입액 목표치에 근거할 것임.
  - 기존의 오래된 마케팅 지원 용자 체계는 면화, 양모, 모헤어(mohair)<sup>7)</sup>, 벌꿀 제품 뿐만 아니라 당해품목에 대해서도 유지될 것임. 상환청구<sup>8)</sup>불가융자(non-recourse loans)는 마케팅 배당(marketing allotments)과 설탕 생산자에 관한 기타 조항을 위해 꾸준히 지원될 것임.

## □ 가격손실보전제 및 농업위험보장직불금

- 새로운 정책 하에서 오래된 경기상쇄지불(Counter Cyclical Payments, CCP)<sup>9)</sup>과 수입보전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지원 체계는 두 개의 주요 메커니

6) 옥수수, 기타 사료 곡물, 밀, 쌀, 대두, 유지종자, 견과류, 두류 등을 포함함.

7) 양고라 산양에서 얻은 모섬유. 섬유는 순백색에 가깝고 회색이나 담황색, 적갈색의 것도 있음. 탄력성이 좋고 광택이 풍부하지 만 질감은 거칠. 모헤어의 특징은 실크와 비슷하고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광택이 나는 것임.

8)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 작성이나 유통에 참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9) 2002년도 농업법(Farm Bill)에 의거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말함.

증, 즉 가격손실보전제(Price Loss Coverage, PLC)와 농업위험보장직불금(Agriculture Risk Coverage, ARC)으로 대체됨.

- 가격손실보전제(PLC): 지급액은 시장 가격이 준거가격(reference price)<sup>10)</sup>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시 밀, 사료 곡물, 쌀, 유지종자, 견과류, 두류 등과 같은 당해품목 중 필수품목의 기본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생산자에게 제공될 것임.
  - 지급률은 준거가격과 연간 전국 평균 시장 가격의 차에 의해 결정될 것임. 각각의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액은, 지급률에 품목별 기본 재배면적의 85%에 해당되는 수치와 농업인의 평균 총수익이 곱해진 수치임.
- 농업위험보장직불금(ARC): 직불금은 소위 ‘자치주 작물 수입(county crop revenue)<sup>11)</sup>’이 자치주 기준 수입의 86%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당해품목 중 필수품목의 기본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제공될 것임. ARC는 5개년 올림픽 평균(Olympic average)<sup>12)</sup> 자치주 생산량에 5개년 전국 가격의 올림픽 평균 또는 용자 비율을 곱한 수치를 바탕으로 설정됨.
  - 농가에 등록된 각각의 당해 품목에 대해 자치주 ARC 지급액은 1에이커 당 올림픽 평균 산출 방식에 의한 보증액과 실제 1에이커 당 수입액의 차액임.

표 2 가격손실보전제 준거가격(부셸(bushel) 당 달러)

	이전 목표 가격	새 PLC 목표 가격
밀	4.17	5.5
옥수수	2.63	3.7
곡물 수수	2.63	3.95
보리	2.63	4.95

자료: Agra-Europe(<https://www.agra-net.net/agra/agra-europe/>).

- 달러로 환산하면, 위 표의 준거 가격은 밀의 경우 201달러/톤, 옥수수는 145.78달러/톤, 수수류는 155.51달러/톤, 그리고 보리는 227.20달러/톤으로 나타낼 수 있음. 국제 밀 가격은 230달러/톤 이상이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수요 및 공급 요인이 주어진다면 23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0)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표준가격을 통칭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정가격, 가장 빈번하게 지불된 가격, 최근에 지불한 가격, 예정가격 등이 있음.

11) 실제 평균 자치주 산출량에 전국 농가 가격을 곱한 값.

12) 5개년 동안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수치로 산출됨.

- 국제 옥수수 가격은 현재 225~230달러/톤 범위이며 보리 가격은 260달러/톤 이상임. OECD는 국제 밀이 설령 2006년 이전 수준의 주가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국제 밀 가격은 2020년까지 260달러/톤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 자료: Agra Europe(2014.04.01)

## 호주-일본, 정상회담에서 EPA 기본 체계 합의

### □ 호주-일본 EPA, 쇠고기 관세 단계적으로 삭감

- 4월 7일 호주의 토니 애벗(Tony Abbott)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가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호주-일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과 관련하여 큰 체계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교섭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쇠고기 수입 관세와 관련하여 냉동 쇠고기를 38.5%에서 19.5%로 18년에 걸쳐, 냉장 쇠고기를 38.5%에서 23.5%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함.
  - 자동차 완성차수출액의 약 75%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그 중에서도 주력종인 1500cc초과 3000cc이하의 가솔린차는 모두 관세가 즉시 철폐됨. 나머지 완성차도 3년째에는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부품은 즉시 철폐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은 3년째까지 철폐됨.

### □ EPA 소쟁, 쇠고기와 자동차로 압의

- 호주 총리는 4월 6일부터 일본을 방문하여 7일 일본 총리와 회담하였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일본 EPA 합의를 발표함.
- 호주의 무역 통계에 의하면, 2013년의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처는 일본임. 호주는 일본에서의 판매를 확대하고자 현행 관세율 38.5%를 19%까지 인하하도록 요청하였음.
  - 한편, 호주 자동차 수입액의 30% 미만은 일본으로 최대 수입처가 되고 있음. 일본은 호주로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자동차의 수입 관세 철폐를 요청하고 있었음.

### □ 냉동 쇠고기관세는 18년에 걸쳐 19.5%로 삭감

- 금번 일본의 수입 관세와 관련하여 유제품, 설탕, 밀 등에 대해 합의 내용이 밝혀졌으나 쌀은 관세철폐 제외대상임. 최대의 초점이었던 쇠고기의 관세에 대하여

냉동 쇠고기를 18년에 걸쳐 38.5%에서 19.5%로, 냉장 쇠고기를 15년에 걸쳐 38.5%에서 23.5%로, 각각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함.

- 단, 호주에서의 쇠고기 수입 수량이 일정량을 넘었을 경우에는 일본이 양허세율을 인상하는 수량 세이프가드를 도입한다고 함.

○ 호주로의 외국투자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일본은 현행 2억 4,800만 호주달러<sup>13)</sup>에서 미국, 뉴질랜드와 같은 10억 7,800만 호주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함.

- 단, 국영기업에서의 투자는 모든 투자가 외국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며 농지, 농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1,500만 호주달러를 기준액으로 하고 있음.

### □ 쇠고기산업 28억 호주달러 성장 전망

○ 금번 합의와 관련하여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서는 금번 합의로 인한 쇠고기의 관세인하는 쇠고기산업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향후 20년간 호주의 쇠고기산업은 28억 호주달러 확대되어 54억 호주달러의 수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함.

○ 호주 총리는 금번 교섭에 대하여 금번 합의는 일본의 투자가에 대하여 호주가 비즈니스에 개방적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교섭을 담당한 호주의 앤드류 롭(Andrew Robb) 통상투자장관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수반되는 교섭이었지만 쌍방이 성공적이었으며, 호주의 고용과 소비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힘.

※ 자료: JETRO(2014.04.08)

13) 2014년 4월 8일 기준 1호주달러는 한화로 약 977.60원임.

## 태국, 쌀 정책 영향과 방향

### □ 태국 쌀 정책 배경

- 태국은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공업부문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농업이 전통적인 수출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면, 쌀에서 향기가 나는 쌀이라 불리는 고품질미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카사바(cssava)는 사료용에서 전분 가공용으로 그 용도가 전환되고 있음. 닭고기도 닭 꼬치구이 등 조리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새우는 블랙타이거 품종에서 바나메이(vannamei) 새우품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과일은 신선품 수출이 성장하고 있음.
  - 태국정부도 이러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움직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한편, 농업과 공업·서비스 부문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어 농업으로의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산자가 많은 쌀에 관한 정책은 탁신 전 수상 지지파와 반 탁신파가 격렬하게 대립하여 불안정한 정치정세로 중요한 정책적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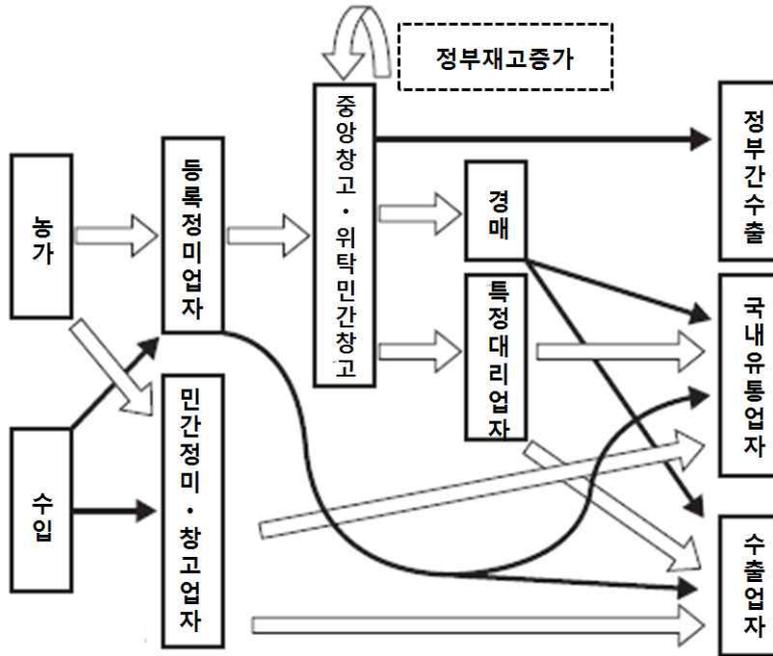
### □ 쌀 담보융자제도

- 2011년 발족한 잉락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첫 월급 인상, 법인세감세 등 많은 포퓰리스트(populist)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 정책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정책은 쌀 담보융자제도임. 담보융자제도는 농민이 수확한 쌀을 정부에 저당하고, 그것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만약 시장가격이 융자 단가보다도 낮으면 그대로 유질(流質)<sup>14)</sup>시킬 수 있는 제도임. 시장가격이 융자 가격을 상회하면, 융자를 상환하고 농민이 스스로 쌀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융자 단가는 시장가격보다 약 50% 높게 설정되어

14)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빌려 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는 일.

있어 실질적 정부가 저당된 쌀을 모두 매입하는 가격지지제도가 되고 있음.

그림 1 현재 태국의 쌀 유통 체계



자료: Primaff(2014.03.31.).

○ 담보유자제도는 수확기의 생산자 가격 저하에 대항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대책으로 1980년대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임.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용자 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대폭 높은 고가격지지 정책임. 전회의 하원선거 시 당시의 민주당 정권 (반 탁신파)이 하고 있었던 농가소득보증제도는 계약량 상한의 부족분지불정책으로, 농민은 보증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부족분지불로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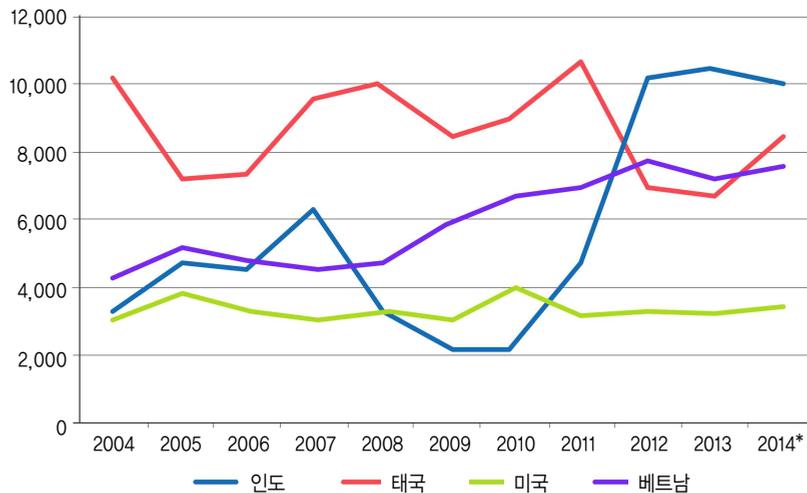
- 현 제도의 용자 가격은 톤당 3,000바트 정도 높고, 게다가 부족분지불이 아닌 쌀 대금의 전액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농민에게서의 지지를 얻는 등 정치적인 효과는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높은 용자 단가로 저당된 쌀을 낮은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면 정부는 역차에 의해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됨.
- 또한 용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출하면, WTO에서 규제되고 있는

수출 보조금으로 인정되어, 상쇄관세(countervailing duty)<sup>15)</sup>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저당미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의 재고미는 급증하였음.

- 정부의 쌀 재고가 급증하는 한편 태국의 쌀 수출은 급감하고, 2000년대에 증가한 태국의 쌀 수출은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2012년과 2013년의 수출량은 2011년과 비교하여 약 300만 톤 감소하였음.
  - 그 결과, 태국은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2년과 2013년 인도,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로 추락하였음.

그림 2 주요 쌀 수출국 수출량(정미)

단위: 천 톤



주: 자료는 미국농무부의 PSD에 의함. 2014년은 예측치이며, 태국의 수출량 회복이 전망됨.  
 자료: Primaff(2014.03.31.).

- 인도는 2011년 태국의 담보유자제도 도입에 맞추어 비(非)바스마티쌀의 수출금지를 풀고 대량의 재고를 방출함.

15)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하면 수출국에 의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어지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국이 부과하는 특별한 관세라고 정의되어있다(6조 3항).

-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의 수출량은 1,000만 톤을 넘어 세계 1위가 되었음.  
베트남도 수출량을 늘려, 연간 700만 톤 이상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음.
- 2011년 담보융자제도의 도입에 따라 태국 쌀의 수출 가격은 다른 수출국가와 비교하여 톤당 200달러 정도 더 높아짐.
  - 2013년 들어 태국정부가 비축미의 저가격 매각을 서서히 진행하면서, 태국 쌀의 수출 가격은 같은 해 3월경부터 저하됨. 12월에는 그 가격치는 거의 해소되었음. 그러나 저가격에서 매각을 진행하면 다른 수출국가에서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음.
- 태국정부가 담보융자제도가 자세한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재정부담액은 불명확함. 2013년 5월, 상원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우계작(雨季作)과 2012년 건계작을 합한 1년 적자액이 1,360억 바트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6월에는 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 단 2012년 우계작 이후의 손실총액은 불투명했던 상태임.
- 또한 담보융자제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가 아니고, 유질된 쌀의 매각 수입과 차입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차입금은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임.
  - 동 채무의 반환이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매년 담보융자제도의 재정부담액은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임.
- 2013년 우계작(雨季作)과 2014년 건계작(乾季作)에서는 한 농가당의 계약액에 상한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정을 거쳐 담보융자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결정되었음. 그러나 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농가로의 융자가 정체되고 있음. 몇 개 현(縣)에서는 신속한 융자 제공 혹은 저당한 쌀의 반환을 촉구하는 등 쌀 농가의 시위와 도로봉쇄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정치정세도 혼란한 상태이었음. 2013년 10월, 탁신 전 수상의 귀국·복권에 연결되는 특별사면 법안의 하원통과를 기회로 반정부 시위대의 활동이 확대되었음. 방콕에서의 대규모 시위와 정부기관 점거가 되풀이된 결과, 12월에는 잉락 수상은 사임하여(현재는 잠정내각수상) 하원을 해산하였음. 그러나 야당세력은 2014년 2월 총선거를 보이콧하고, 정치대립의 결속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리고 2013년 10월 시작한 우계작(雨季作) 담보융자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새롭게

---

700억 바트의 차입이 필요하였음. 그러나 현 내각은 선거 관리 내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입을 정부가 채무보증을 하는 것의 합헌성이 문제되는 등 정부는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었음.

- 또한 독립기관인 국가오직방지단속위원회(國家汚職防止取締委員會)가 담보용 자제도 관련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을 포함한 복수의 정치가를 수사하고 있는 것도 보도되었음. 이렇게 불안정한 정치정세와 더불어 태국의 쌀 제도는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었음.

## □ 요쟁되는 쟁책

- 쌀의 담보용자제도에서는 시작과 함께 수출의 급감이라는 문제점이 즉시 발생함과 동시에 2년 동안 용자 자금은 고갈되어 자금제공이 정체되어 있음.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어 전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담보용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태국정부는 작목마다 생산을 장려하는 지역을 한정하는 조닝(zoning)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조정정책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담보용자제도를 둘러싸고 저당미의 불투명한 이용과 많은 부정이 보도되고 있어, 우선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 그리고 무엇보다 동 제도는 제도설계상 근본적인 난점을 안고 있음. 그것은 WTO협정으로 수출 보조금이 금지되었음.
  - 또한 ASEAN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쌀의 역내무역이 자유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쌀 수출국인 태국이 국내가격에 개입하고 생산을 자극하는 것임. 전(前)정권에서 실시된 농가소득보증정책과 같이 시장의 수급조정기능을 살리면서,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

※ 자료: Primaff(2014,03,31)

## FAO, 세계 최초 가장 정교한 토지 DB 구축

### □ FAO,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정교한 토지피복 데이터베이스 구축

- FAO 이니셔티브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토지피복 데이터가 통일됨.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토지피복의 글로벌뷰를 제공함.
  - FAO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뿔뿔이 흩어져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토지피복에 관한 정보를 세계적 규모로 수집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약한 것임. 이에 의해 지구표면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큰 진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토지가 경작지, 삼림, 나지(裸地)<sup>16)</sup>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토지피복에 관한 글로벌 개관을 얻기 위한 주요한 도전의 하나로서, 여러 국가와 조직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관련 데이터를 특정, 측정, 기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번 FAO의 새로운 글로벌 토지피복 점유율 데이터베이스(Global Land Cover SHARE database)에서는 복수의 소스나 파트너로부터 제공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정의와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품질면에서 입증되어 조화된 것임. 이것은 국가 수준의 풍부한 정보를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1개의 데이터셋(data set)으로 통합하기에 이른 것임.
- 새로운 GLC점유율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를 살펴보면 글로벌 토지피복의 동향 감시, 다양한 용도를 위한 토지 적합성평가, 식량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이 포함됨.

### □ 지속가능한 토지관리가 중요

- FAO의 토지-수자원부 관계자인 John Latham은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농업생산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토지자원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토지피복

16) 가려줄 식물이나 건축물이 없어 노출된 토지.

---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고갈되는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면서 환경의 보호로도 연결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우리는 지구의 토지피복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있으며, GLC점유율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빈곤퇴치에 공헌하면서 실증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토지이용정책 지원을 위한 유익한 도구로서 포괄적이면서 효율적인 농업·식량시스템의 실현과 생계의 탄소 에너지 증가에 기여한다고 언급함.
- 더불어 GLC점유율은 기후변화와 기후다양성이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주요 천연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함.

○ 급증하는 세계인구와 증대하고 있는 식량수요는 농업에 있어서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음. 그 도전은 다음 세대에 변화하는 기후에 대처하면서 보다 적은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더욱 많은 식량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FAO는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 세계 식량생산을 2050년까지 60%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FAO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11개 항목의 토지피복 분류를 포함하고 있음.

- 인공표면(지구 표면의 0.6% 커버), 나지(裸地)(15.2%), 경작지(12.6%), 목초지(13.0%), 초본식생(1.3%), 내륙수역(2.6%), 맹그로브(0.1%), 관목피복지역(9.5%), 눈과 빙하(9.7%), 드문드문한 초목(sparse vegetation)(7.7%), 나무피복지역 (27.7%)

※ 자료: FAO(2014.03.17)

자료 작성: 이해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